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물 위해평가제도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 정비로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 등 축산물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는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 의무화와 관련,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에 포장 대상 축산물·영업자 및 포장유통 방법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포장대상 축산물은 우선 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변질되기 쉬운 닭·오리고기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닭·오리 관련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이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일 도축두수 8만수 이상의 도축장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토록 하고, 전체적인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방법 등 마련

(시행규칙), 새로 도입되는 축산물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시행령), 과태료 상한액 인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시행령)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기획 73~81P 참조).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 편성을 위한 심의 위원회 개최

농림부는 지난 6월 12일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축산발전심의회위원회를 개최했다.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593억원으로, 2006년(9,941억원) 대비 6.6%가 증가한 수준이다. 기금 수입은 마사회납입금 등 신규조성액 1,297억원, 융자금 회수액 6,749억원, 여유자금 회수액 2,546억원으로 조성된다.

농림부는 ① 친환경축산,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등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② 지방비 부담확대, 수수료 축소, 운영비 절감 등 세출구조를 조정했고, ③ 사업집행실적 및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7년도 기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축산물안전성 및 축산물소비확대를 위한 사업비 증액 중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사업에 올해 10억원을 지원했으나, 2007에는 4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고, 보조비율과 수수료를 축소하여 경상비 지출은 절감되며, 집행실적 및 재정사업 평가 등을 반영하여 부진사업의 경우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중단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의 경우 2006년 2,043억원이 지원됐으나, 2007년에는 1,697억원으로 346억원이 감소되며, 축산물도축가공업체종합지원은 2006년 1,782억원에서 2007년 1,530원으로 252억원이 감소된다. 한편 축산물자율수급조절, 브랜드가맹점 설치지원사업 지원은 사업이 종료된다.

농림부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2007년도 축산발전기금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

농림부는 2006년 적용할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농림시설 등 44개 종목을 인상하고, 그 동안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가 없어 애로를 겪은 인삼의 농약대를 신설했다.

농림부는 이번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인상은 종목별로 3.2~400% 인상했으며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목별 인상 현황에 따르면 축사의 경우 번식돈사는 22.8%, 비육돈사는 6.5% 인상하고, 산란계사는 33.7%, 육계사는 62.0% 인상된다.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경우 한육우는 161.7%, 젖소는 124.3% 인상하고, 돼지는 6.1%, 닭(평사) 236.8%, 닭(케이지) 108.0% 인상된다. 인상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적용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2006년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닭)〉

(단위 : 원)

구분	2005 단가	2006 단가	인상률(%)
[축산시설 복구]			
○축사파손			
· 계사(산란)	150,000	200,500	33.7
· 계사(육계사)	104,000	168,500	62.0
○축산분뇨처리시설			
· 닭(평사)	23,310	78,500	236.8
· 닭(케이지)	37,740	78,500	108.0

농업재해복구비(보조금) 100% 선지급 결정

농림부는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따라 농업재해복구비(국고·지방비 보조금)를 복구이전에 미리 100% 선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 100% 선지급 대상은 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이다. 다만,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농업재해복구비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복구이전에 미리 100%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를 통한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풍·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 긴급현지 점검

농림부는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잦은 재해발생이 예상되고, 특히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해상습지역, 취약시설 등에 대해 긴급 현지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지점검반은 8개반 16명으로 구성되었고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긴급 현지점검은 농업용 저수지, 양·배수장 등 재해취약시설과 상습침수장 등 피해우려지역 뿐만 아니라 양곡 및 자재창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용시설, 전년도 피해복구지역에 대한 복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축공제에 '민영보험사'도 참여

농림부는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현재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 모집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반 민영보험사에 게도 개방한다.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에 가축공제에 참여할 민영보험사 1개사(社)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렇게 선정된 민영보험사는 2007년 1월부터 가축공제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금류의 설해피해도 2007년 1월부터 보장된다.

그간 가금류는 설해 발생시 그 피해가 크고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공제사업자가 보장을 꺼렸으나, 가금 사육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눈피해도 주계약으로 보장키로 했다.

한편 피해 발생시 농가가 지급받는 공제금 수준도 2006년 8월부터는 현행 축종별 보장비율(소 : 80%, 돼지·닭 : 95%)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보장비율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 2006년 8월부터 공제료를 연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으며, 현재 7개 축종이던 것에서 매년 가축공제 대상가축 범위가 확대된다.

그리고 현재 가축에 대해서만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공제사업자가 축사 전기안전점검과 가축 무료진료 사업 등을 보다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했다.

‘농업인 금융사고신고센터’ 설치·운영

농림부는 농업인들이 일선조합의 자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상환절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설정된 농지가 경매에 넘겨지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에 ‘농업인 금융사고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에서는 대출미상환으로 농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상담을 통해 농업금융 피해접수,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하고, 나아가서 연체농가 등에 대한 경영회생 지원 등 기존의 금융정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위기로 연체상태에 있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파악, 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농지은행에 농지 매매를 통한 회생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농림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 농업금융컨설팅 항목을 추가하여 대상농가가 금융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업인 금융관련 불편사항 신고처

- 농림부 : 협동조합과(02-500-1699)
- 농협중앙회 :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02-2080-5303)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이 지난 6월 28일 서울 명동 거리와 전국 도청소재지에서 동시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 행사에는 박홍수 농림부장관,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김동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등이 참석, 차례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추억과 동심이 살아나며,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곳, 다양한 먹거리와 산뜻한 체험이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농산어촌이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이와 관련 정보는 ‘농촌관광포탈사이트

(www.greentour.or.kr) , ‘농협사이트 (www.nonghyup.com)’ 등에서 제공한다(자세한 내용은 ‘떠나자’ 108P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새로운 로고 제작·발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새롭게 도약하는 검역원의 이미지 창출과 실현을 위해 검역원을 상징하는 새로운 로고를 제작·발표하고 앞으로 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을 상징하게 될 새로운 로고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건강하고 활기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동물 및 축산물, 풍요로운 삶을 위해 국민보건 향상에 공헌하겠다는 검역원의 의지를 담고 있다.

검역원은 이번 새로운 로고 활용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종합수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2/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16일 대전광역시 고속전철역사 컨벤션센터(교양실)에서 농림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등과 수의과학검역원 방역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2/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예찰과 중앙예찰협의회의 연계강화는 물론 예

찰협의회의 활성화 목적으로 지방에서 순회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충남 지방방역기관에서 유치하여 처음 실시되었으며, 최근의 질병 발생동향,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결과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또한, 하절기 주요 질병의 발생예측 및 예방대책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울러, 동 협의회 주관 부서인 방역과(과장 위성환)에서는 지방방역기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방역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축위생학회’와 공조체계를 구축, 봄·가을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동 협의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사료 및 축산물 HACCP 담당자 교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료 및 축산물 HACCP 담당자를 대상으로 ‘HACCP 전문기술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

강문일 원장은 인사말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HACCP 적용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역할과 노고를 각별히 치하하고 HACCP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검역원 관계자의 축산물가공처리

법 개정 동향과 배합사료공장 HACCP 추진현황, 미생물검사기법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외부강사의 강의로는 서울사료 김만남 부장의 '사료공장의 HACCP 적용사례', 식약청 이임식 사무관의 'HACCP발전방안', 푸드원텍 권오건 본부장의 'HACCP 검증실무'에 대한 기술세미나가 실시되었고,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단계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HACCP 적용정책에 대해 현장 업무담당자의 이해증진과 HACCP 제도의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검역원에서는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현장실사 기법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담당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정보공유를 통한 HACCP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와 안전축산물 생산의 근간이 되는 가축사육단계 및 배합사료공장의 HACCP 적용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업종별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16일 검역원 대회의실에서 시·도 등 관련공무원, 식육가공업체·알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 및 관련협회 등 24개 업체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 및 축산물위생감시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써 하절기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육·알가공품의 위생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각 규정의 최근 개정사항에 대해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분야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시기준에 따



라 포장용기 표시사항 정비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표시 및 영양성분표시 의무화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질병과, 도계장 찾아 'HPAI 방역홍보 체험행사' 가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없는 청정국가이며, 계속적으로 비발생 국가로 남기 위해 검역원에서 현재까지 수행해 왔던 조류인플루엔자 국가방역 및 국경검역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현장중심의 연구강화를 위해 지난 6월 13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강CM(주) 도계장에서 'HPAI 방역홍보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권준현 조류질병과장은 2003년 12월 발생했던 HPAI를 불과 4개월 만에 완전하게 근절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신속 정확한 진단기술, 살처분정책(Stamping-out)의 추진, 철저한 차단방역, 관련업계의 헌신적인 노력 등이 잘 융합된 결과물이며, 국내 조류질병을 연구하는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닭전염병 방제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조류인플루엔자를 박멸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나라는 매우



드문 예로 축산선진국들도 이런 사실에 매우 놀라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는 대부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된 닭고기임을 강조하면서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철 건강유지를 위한 보양식으로 닭고기만한 음식이 없다고 현장 종사자들은 말했다.

모든 행사 참석자들은 현장문제 해결과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현장연구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더욱 긴밀한 정보교환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키로 했으며, 하절기와 장마철엔 가금티푸스나 콕시듐증의 발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양계농장을 비롯한 관련업체에서는 방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적절한 소독 후 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의사국가시험’ 제도발전을 위한 위원회 출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21일 검역원에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임된 위원(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는 그동안 매년 시험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운영되었으나 시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상설기구화하고

기능도 강화되었다.

금번에 구성된 임기 2년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은 당연직인 검역원장을, 그 외 위원은 수의과대학 교수, 농림부·검역원 및 대한수의사회 관계관 등 각계 전문가 9인을 위촉했다.

앞으로 동 위원회는 수의사국가시험 제도 개선 등 수의사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축산연구소

닭고기 이상육(PSE) 출현율 연구 조사

닭고기에서도 돼지고기와 같이 품질이 낮은 이상육(PSE)이 있으나 이러한 이상육은 통닭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닭고기가 부분육으로 유통되면서 가슴육이 창백(pale)하고 흐물거리며(soft) 수분삼출(exudative)이 과도한 이상육(PSE)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육계의 사육밀도, 수송(거리, 밀도, 방법), 그리고 도계장에서 육계를 계류하는 시간 등에 따라 이상육(PSE) 출현율을 연구한 결과 육계 사육밀도와 수송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육계사육 밀도에 따른 닭고기의 품질과 이상육(PSE) 출현율을 보면 통닭형태에 있어 1+등급은 고밀도 사육 26%, 표준사육 52%, 저밀도사육 66%로 표준사육이 고밀도사육에 비해 2배 정도 1+등급이 출현했다.

부분육에 있어 가슴육의 1+등급 출현율은 고밀도사육 76%, 표준사육 80%, 저밀도사육 86%로 사육밀도가 낮을수록 1+등급 출현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가슴육에서 PSE육은 고밀도사육에서 경증, 중증을 합해

8%였으나, 표준사육에서는 경증 PSE육만 10%를 나타냈고, 저밀도 사육에서는 PSE육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닭고기의 품질은 육계사육 밀도에서 표준사육이 고밀도사육에 비해 1+등급이 2배 정도 많이 출현했으며, 가슴육의 PSE육 출현율도 사육밀도가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 정보지 고객반응 설문조사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방역위생’ 정보지의 보다 신속·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고객반응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내용은 ‘방역위생’의 내용 구성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이며, 정보내용과 편집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설문조사 참여 방법은 ‘방역위생’ 정보지(6월 15일자)에 수취인 후납방식의 우편엽서를 직접 작성해 발송하거나 홈페이지(www.okbangyok.org)에 마련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방역분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방역위생’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지의 내용구성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목우촌, ‘우리쌀 너겟’ 출시

농협중앙회 목우촌은 쌀과 닭고기를 혼합한 ‘우리



쌀 너겟’을 출시, 6월 15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이용한 독창적인 제품으로 운동능력 향상과 체중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L-카르니틴과 비타민 B를 코팅한 칼슘비타

쌀,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해 만든 ‘우리쌀 너겟’은 너겟 속에 쌀이 알알이 들어있어 씹히는 맛이 좋은 영양만점의 제품이다.

‘우리쌀 너겟’은 농협 하나로마트 및 대형 유통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격은 6,400원(460g)이다.

음성계육가공공장 도축장 ISO 22000 인증 획득

농협중앙회 목우촌분사 음성계육가공공장(공장장 임철교)은 지난 5월 2일에서 12일까지 실시된 최초 인증심사(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를 거쳐 2006년 6월 14일자로 도축장, 포장육, 양념육, 분쇄가공육 및 기타가공품 부분에 대해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ISO 22000은 식품안전을 위한 HACCP 시스템에 선행요건 프로그램, 시스템 경영 및 의사소통이 접목된 국제규격으로 식품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한국자조금연구원

축산자조금 지도자 간담회 개최

(사)한국자조금연구원(원장 박종수)은 지난 6월 21



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축산자조금 지도자 간담회를 갖고, 축산자조금 사업을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체간 정보교류는 물론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한 축산자조금 지도자들은 그 동안 개별 품목별로 자조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행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품목간에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자조금을 출범시켜 다른 품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돈자조금의 김건태 관리위원장은 “그동안 자조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품목들은 먼저 시행하고 있는 품목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모임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지도자들은 아직도 일선에서 자조금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다며 소비자 홍보는 물론 농가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계육협회 한형석 회장은 “육계자조금 대의원총회에서 농가들은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자조금과는 별개의 문제까지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자조금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자조금연구원 황인옥 감사는 “경쟁축종에서 경쟁

적으로 자조금을 도입하다보면 후발주자들이 많이 초조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품목별 특성에 맞게 충분한 사전 교육과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관한 성명서 발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광동경)는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C사의 학교급식 대규모 식중독 사고와 관련 6월 28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학교급식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급식관리전담인력인 영양사들의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규격기준 설정 및 납품 전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열악한 급식환경개선 등이 시급하므로 우선적으로 각 시도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원센터 내에 식재료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식품 전문 검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재료 규격기준을 개발과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 식재료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 식재료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식재료 공급업체의 업종을 신설하여 사업 인·허가 취득,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 검사를 강화,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및 냉·난방시설 설치, 손 씻기 시설 설치 등 급식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학교급식은 향후 드라이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